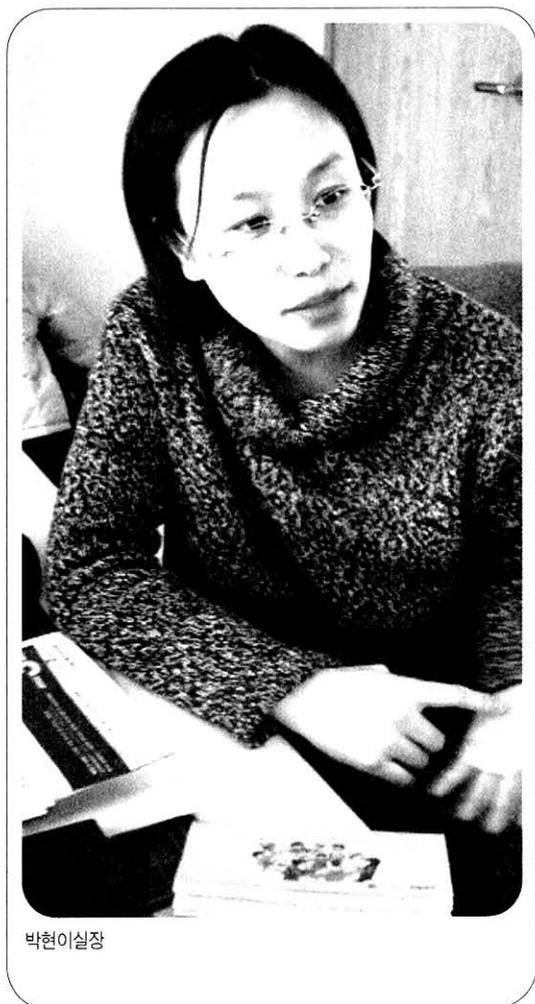


공동체화폐 '두루'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 지역 품앗이<한발 레츠>



박현이실장

세상 속 넘쳐나는 돈타령에 돈은 더 이상 교환의 편의를 위해 태어난 인간 발명품이 아닌 듯 싶다. 돈은 사회 골골살살을 덮고 막아 공동체의식이 싹 틀 수 있는 약간의 풋풋한 땅조차 남겨놓질 않으려 한다.

'돈 없이 살 수 있을까?' 돈이 만든 인간사이의 벽 없이 살 수 있을지. 어이없는 이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하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곳이 있다. 대전시민에게는 '원' 말고도 또 다른 그들만의 화폐, '두루'로 만드는 공동체가 있다.

레츠(LETS)는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어렵게 말하면 지역교환거래체계인데, 정해진 지역사회 안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주고 받을 때 현금 대신 자체에서 만들어 인정하는 화폐를 사용하여 거래한다. 물론 신용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지역주민간의 우애로운 교환 방식이다.

레츠는 1983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기반산업인 목재업이 침체되면서 마이클 린턴이 실업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을 살리고자 고안되어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녹색평론을 통하여 처음 소개된 후, 2년 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연구 교육하면서 시작되었는데 1998년 이후 일종의 붐을 맞기도 했다.

당시 레츠가 소개된 시기는 IMF 이후라, 실업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경제시스템으로 주목받으면서 각 지역별로 31개 정도의 시스템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결국 침체되었고 몇몇 군데만이 명맥을 잇거나 최근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 지난 2002년도 참여자치시민상을 시상하였다. 14번째



한발레츠

거래 일자	거래지	채공금액(+)		요청금액(-)		잔액		확인
		두루	현금	두루	현금	두루	현금	
0102/01	거래내역 등록소			10,000			-10,000	
0108/09	거래내역 이은영			5,000			-15,000	
0109/13	거래내역 안여중			8,000			-23,000	
0109/18	거래내역 이관범			20,000			-43,000	-10,000
0112/19	거래내역 최희환			20,000			-63,000	-31,000

거래내역이 기록된 회원통장

한발레츠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1983년 경 캐나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지역 통화운동은 1998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대전지역에서는 '대전의제 21추진협의회' 박용남 사무처장님의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2월에 창립했고, 2001년 5월에 '한발레츠'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홀로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한발레츠의 활동도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흠여지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참여자치를 이끈 수상자로 '한발레츠'라는 대전지역 공동체화폐 운동단체가 선정되었다.

“지역품앗이 한발레츠는 외환위기로부터 강화된 시장만능주의에 맞서 돈으로 교환되는 노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환되는 노동력 교환운동을 벌여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대전을 가꾸는 운동을 해오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꿈을 실천하고 새로운 차원의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 2003년 2월 20일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

상패에 쓰여있는 수상 이유처럼 한발레츠는 <공동체 화폐 '두루'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을 이루겠다고 한다. 대전시 대덕구 범동에 위치한 한발레츠의 박현이 실장을 만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꿈'을 위한 한발레츠의 노력을 들어보았다.

생소한 운동인데 시작이 힘들지는 않았는지

-초기에는 KBS '6시 내고향' 등 언론을 통한 홍보가 컸습니다. 이를 보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회원들 혹은 입소문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소문이 났어요. 4년째 되는 지금은 약 50여개 가맹점이 있고, 4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레츠가 비록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시스템이지만 예로부터 돕고 나누는 우리의 전통인 '두레' 정신, '품앗이'와 맞닿아 있어 생소한 외래 운동이라기보다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려는 시민운동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발레츠’ 아래층에 자리한 의료생활협동조합 병원 민들레의원

레츠의 거래과정을 설명해 달라

-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은 제공할 것과 요청할 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한 후, 품앗이 장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자율적으로 연락하여 거래합니다. 거래시 현금과 두루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가격의 30% 이상을 두루로 거래해야 하며 거래시 수입이 생긴 회원이 반드시 등록소에 통보해 거래 액수의 5%를 수수료로 제공해 등록소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모든 내역은 공개되고 있고요.

지역화폐 ‘두루’란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대전지역 공동체 화폐단위인 ‘두루’는 우리 말 ‘두루두루’에서 따온 걸로 아는데, 박용남 사무처장님이 지은 겁니다. 현금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고요(1,000두루=1,000원).

이렇게 회원 간에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해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으니, ‘두루’는 ‘원’이나 ‘달러’, ‘엔’ 등과는 달리 ‘인간의 얼굴을 한 화폐’입니다. 지금까지는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등록소에서 관리하는 계정관리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화폐의 형태로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디자인도 끝났어요.

(예를 들면 ‘아기돌보기’를 해서 3만 두루를 벌었다면 등록소 장부에 3만두루가 입금되고, 이 사람

이 김치를 5천두루에 샀다면 통장의 3만두루에서 5천두루가 빠져나가는, 계정상의 거래인 셈이다.)

이런 지역통화운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돈이 없으면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사회구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교환통화운동은 현금을 덜 벌고도 살 수 있는, 시장경제로부터 조금은 독립적일 수 있는 생활양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대안화폐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화폐의 보조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돈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돈이 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연락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돈에 덜 매여 살 수 있고,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지역통화운동의 기능으로 보면 되는지

-공동체 화폐 ‘두루’를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드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갖기를 원하는 이웃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도 생필품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장에서는 거래가 어려우나 생활에서는 꼭 쓰임새가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잘 쓰이지 않는 집안의 여러 물품들이 다른 이들에게 요긴하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또 마땅히 도움을 청할 데가 없거나 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도, 공동체의식을 높여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레츠의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외국 등 다른 곳에서 레츠운동 현황은

-전 세계적으로 영국, 호주, 프랑스, 이태리 등 1,500개가 넘는 시스템에 10만명 이상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요. 일종의 거래 시스템이라 아무래도 거래에 더 익숙한 외국에서 발달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레츠는 나라마다 특성있게 발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지역에너지권이나 교통권으로 바뀌어서 교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시 외에 진주시 고잔동 동사무소

에서 진행하는 '고잔 품앗이' 나 광주전남 녹색연합의 '나누리', 그리고 부산 YMCA 등에서 레츠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년째 레츠운동을 진행하면서 보람이 있다면

-공동체 화폐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 가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돈, 돈, 돈 하는 세상에서 서로 건강하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 촘촘한 생활의 그물망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는 자체가 보람입니다. 회원 개개인이 공동체화폐의 사용을 통해 의도치 않아도 공동체 의식이 발전되고, 레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습관까지도 지역 친화적 스타일이 되도록 하는 게 궁극적 지향입니다.

지금 한발레츠 모델이 대안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화폐로 인해 파괴된 인간성과 공동체 삶의 방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츠운동을 벌여나가기에 극복해야 할 장애가 있다면

-무엇보다 등록소의 안정이 중요한데, 기존에 활발히 일어났다가 사그라든 여러 곳의 문제가 바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등록소가 부실했다는 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적인 안정은 있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위축되고 손을 놔버렸어요. 보다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재정이 튼튼한 독립된 민간단체가 맡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통화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로는 한발레츠가 유일한 실정이에요. 그 외에 회원 간 거래에서 생기는 마찰은 지나치게 서로를 편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 생기는 것인데,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레츠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작년에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설명회에 나가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동네주부들이 자기 동네에서 소규모로 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일단 중요한건 꾸준히 맡아 할 담당자가 있어야 하고, 분야별로 팀을 꾸려서 홍보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렵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농촌



공동김장을 담그는 모습

지역을 정해 직거래를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김장배추 등을 직거래하면서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를 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발레츠의 계획 혹은 목표는

-실무자에게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부터 공동체 화폐 자체가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홍보도 벌여야 하고, 마을위주의 작은 지역에서도 레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품앗이 매뉴얼도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 여력이 안돼요. 앞으로 지방세금이 지역화폐로도 납부되는 것 등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에는 여러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연구원들이 모여 '한발레츠 3년평가 워크숍'이 열릴 만큼 한발레츠는 지역통화운동의 좋은 학문적 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동네사람들끼리 지역통화로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하면서 서로서로 알아가고 돕고 배우는 공동체 사회를 상상해보자. 사라졌거나 오지 않을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혁명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화폐로 나눔과 보살핌의 경제가 커가고 있다.